

대입 재수생 및 편입준비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태현* · 남철현**

*부산삼정약국 ·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조사성적 및 고찰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현대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물질의 풍요로움과 윤택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물로 등장하는 퇴폐향락문화의 발달은 사회악의 하나로 성장하여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청소년에게는 직·간접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명례, 1996).

최근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종 약물을 혼합 병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병근, 1980).

약물 남용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데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중단할 수 없어서 남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여 결국은 개인, 사회, 국가에 악 영향을 미친다. 약물 중독 문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 문제를 고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1960년 이후 마약의 종류는 물론 마리화나 나 LSD같은 환각제 및 그외의 비마약성 약물 남용의 현저한 증가로 1971년 당시 미국의 Nixon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공적 제 1호를 약물남용이라고 하였다. 94년 현재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1,946억 달러나 되고 미국은 생산성 손실도 500억 달러나 되며 마약과의 전쟁에 연

간 국민1인당 4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주왕기 1994). 약물 남용은 한 개인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이다. 게다가 91년까지는 감소하던 약물 남용자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약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며 이러한 약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주왕기, 1993).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94년도에 총 255개 제약 회사에서 11,537종을 생산하여 4조9천억원의 생산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 의약품도 '94년 총 유통의 6.38%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성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정신성 의약품, 습관성 의약품 및 정신질환 치료제는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마약, 마리화나,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마음대로 약국, 일반잡화상회, 문방구 등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오남용과 부작용의 발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규 1999, 남철현외 1998).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에 대한 논문은 윤대순(1997), 이명례(1996), 주왕기(1994), 박주향(1993), 이경영(1993), 박성혜(1990), 대한 적십자(1988) 주연숙(1989), 이재광(1987), 조인순(1983), 최연아(1983), 민병조(1980), 변상호(1979)등 많이 있으나 고교 졸업생이나 재수생 및 편입생 연령층인 청소년후기의 20대전후의 약물남용에 대한 연구 논문은 극히 드물다. 이시기는 자기 불안, 자기 갈등, 자기 극복, 자아 안정, 자아 확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수립, 정신통로의 안전화, 자아 발전에의 사고 등으로 생각이 많으나 자아 기능을 확립하여 불안과 갈등을 처리하게 되고 정신통로 향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시기로서 사회관계 및 준비단계 속에서 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승화시

키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이다. 이 시기를 원만히 경과하지 못할 경우는 지나친 열등감이나 자존심의 저하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정신통로, 신체적 스트레스로서 약물 남용에 젖기 쉬울 수도 있으며 대학 입학자는 일시적인 안도감이나 탈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 대학실패자는 낙담과 수치감 등으로 고등학교의 연장선장에서 약물을 탐닉할 수도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함으로서 약물과의 친화성이 높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약물남용의 실태 파악과 관련 요인의 파악은 초기의 청소년 시기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수생과 편입생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식 수준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교육·홍보 등 약물 오남용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수 및 편입생의 약물 복용 실태 파악
- 2) 재수 및 편입생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식수준 파악과 관련요인 분석
- 3) 재수 및 편입생의 약물 복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분석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1999년 2월 3일부터 5월 31일 까

지 약 4개월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등 5개지역에서 각각 2개 학원씩을 편의 추출하여 수강하고 있는 대학의 편입준비 또는 대입 재수생 1,8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은 각 400명, 광주, 대전, 지역은 각 300명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 이용된 질문지 수집은 연구자와 대학원생 2명이 각 조사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사전에 협조 약속된 학원을 방문하여 학원 담당자의 협력하에 별첨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조사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케 하여 직접 수거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응답이 불확실하거나 잘못 기재된 설문지는 제외하고 당초 조사대상자 1,800명중 전체의 98.4% 인 1,771명의 설문지를 spss pc+에 의거 전산처리 하여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휘귀 분석을 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t-test, F-ratio, χ^2 -test로 하였다.

4. 조사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작성하며 20명의 재수생을 상대로 사전조사를 하고 수정이 필요한 문제는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10문항, 중독증상에 관한 지식 3문항, 대인관

계 3문항, 자기감정 관련 3문항, 건강상태, 교육경험, 기차 약물관련 사항 12문항이다.

5. 변수설정

종속변수는 약물경험이며 독립변수는 일반적 측정, 건강상태, 대인관계, 자기 감정, 중독시와 교육경험, 약물 양상 등으로 설정하였다.

Ⅲ. 조사성적 및 고찰

1. 약물(흡연, 음주, 약물사용) 경험 실태

흡연률은 22.8%였으며, 음주를 49.7%, 약물은 6.7%의 사용경험률을 보였다<표 1>. 이는 신문주(1994)의 일부대학생의 약물사용실태 연구의 흡연률 39.3%(남 13.9%, 여 9.3%), 음주를 94.4%(남 97.6%, 여 91.6%), 각성제(23.9%), 수면제(7.9%)보다 낮은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대학생으로서 대입시를 위하여 재도전하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흡연의 경우, 남자는 44.0%, 여자는 4.4%였으며($p < 0.001$), 15~19세에서 88.1%, 20~24세에서 78.8%, 25~29세에서 66.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률은 낮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 < 0.001$).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흡연률 22.5%보다 친부 또는 친모만 생존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흡연률이 25.0%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고(1990)의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 생존자에서 편부모 생존자보다 흡연률이 높았는데 역시 유의성이 없었다. 흡연률은 형

〈표 1〉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흡연, 음주, 약물 경험 여부

구 분	총 계	흡 연		음 주		약 물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100.0(1771)	77.2(1367)	22.8(404)	50.3(891)	49.7(880)	93.3(1652)	6.7(119)
성별							
남	100.0(825)	56.0	44.0	42.9	57.1	92.3	7.7
여	100.0(946)	95.6	4.4	56.7	43.3	94.1	5.9
		$\chi^2=393.63169***$		$\chi^2=33.54899***$		$\chi^2=2.39852$	
연령							
15~19	100.0(436)	88.1	11.9	79.4	20.6	95.6	4.4
20~24	100.0(756)	78.8	21.2	44.3	55.7	92.3	7.7
25~29	100.0(579)	66.8	33.2	36.3	63.7	92.7	7.3
		$\chi^2=65.64121***$		$\chi^2=33.54899***$		$\chi^2=5.997341*$	
형제자매수(본인포함)							
1명	100.0(86)	72.0	28.0	66.6	33.4	93.4	6.6
2명	100.0(632)	79.3	20.7	56.4	43.6	93.1	6.9
3명	100.0(539)	73.6	26.4	44.0	56.0	92.6	7.4
4명	100.0(311)	80.7	19.3	46.1	53.9	94.5	5.5
5명 이상	100.0(203)	76.8	23.2	47.6	52.4	93.8	6.2
		$\chi^2=9.58517*$		$\chi^2=29.87083***$		$\chi^2=1.29377$	
현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00.0(1006)	76.3	23.7	52.9	47.1	94.4	5.6
중소도시	100.0(480)	78.4	21.6	43.5	56.5	92.2	7.8
읍,면 소재지	100.0(258)	78.4	21.6	52.5	47.5	91.2	8.8
		$\chi^2=1.11790$		$\chi^2=12.26466**$		$\chi^2=5.99234*$	
교육정도							
고졸	100.0(1110)	79.3	20.7	42.4	57.6	93.2	6.8
전문대졸	100.0(661)	69.3	30.7	35.5	64.5	92.6	7.1
		$\chi^2=44.23372***$		$\chi^2=246.28682***$		$\chi^2=4.17936$	
직업							
전문기술직	100.0(240)	76.9	23.1	49.5	50.5	92.6	7.4
농·축·임업	100.0(374)	62.3	37.7	49.0	51.0	88.1	11.9
학생	100.0(756)	77.8	22.2	52.1	47.9	93.7	6.3
가정주부	100.0(401)	83.0	17.0	48.6	51.4	94.8	5.2
		$\chi^2=11.98184**$		$\chi^2=1.72225$		$\chi^2=4.21980$	
종교							
기독교	100.0(433)	83.4	16.6	60.3	39.7	96.9	3.1
천주교	100.0(190)	68.2	31.8	42.3	57.7	90.7	9.3
불교	100.0(478)	77.8	22.2	56.1	43.9	92.3	7.7
없음	100.0(670)	75.2	24.8	42.0	58.0	92.4	7.6
		$\chi^2=19.88258***$		$\chi^2=47.1367***$		$\chi^2=12.92332**$	
가정경제상태							
상	100.0(59)	79.2	20.8	60.0	40.0	89.3	10.7
중	100.0(1483)	77.9	22.1	49.5	50.5	93.8	6.2
하	100.0(229)	71.8	28.2	53.1	46.9	91.0	9.0
		$\chi^2=4.36117$		$\chi^2=3.28108$		$\chi^2=3.99940$	

*: p<0.05, **: p<0.01, ***: p<0.001

제 자매수별로 보면 1명인 경우가 28.0%로 가장 높았으며 3명이 26.4%, 5명 이상이 23.2%, 4명이 19.3%의 순이었으며 유의성이 있었다 ($p<0.05$).

대도시 지역 거주자에서 흡연률이 23.7%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전문대 졸업자에서 30.7%로 고졸자 20.7%보다 높았으며 ($p<0.001$), 농축임업종사자에서 37.7%, 전문기술직 23.1%, 가정주부 17.0%의 순이었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1$).

종교별 흡연률은 천주교 신자에서 31.8%로 가장 높았고 무교에서 24.8%, 불교신자에서 22.2%의 순이었으며($p<0.001$), 가정경제 상태별로는 하류층에서 28.2%, 중류층에서 22.1%, 상류층에서 20.8%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음주률을 보면, 남자에서 57.1%로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연령별 음주율은 25~29세군에서 63.7%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군이 55.7%, 15~19세군이 2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률도 높았다($p<0.05$). 친부나 친모만 있을 경우가 53.9%로 양친 생존 경우의 49.1%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형제자매가 3명인 응답자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4명이 53.9%, 5명이 52.4%였고 1명이 33.4%, 2명이 43.6%로 형제자매의 수가 적을수록 음주률이 낮았다($p<0.001$).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56.5%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거주자가 52.9%로 가장 낮았다($p<0.01$). 전문대 졸업자에서 30.7%로 고졸자보다 높았고 가정주부에서 51.4%로 가장 높았고 학생에서 47.9%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학생보다 직장인들의 음주률이 높았는데 경제적여건, 사회생활 스트레스등으로 음주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종교별로 보면 무교에서 58.8%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에서 57.7%, 불교

43.9%, 기독교 39.7%의 순이었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자가 판단한 경제상태별로는 하류층에서 46.9%로 상류층보다 음주률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신(1994)의 연구와 같았다.

약물경험의 경우, 6.7%의 경험률을 보였으며 남자에서 7.7%로 여자의 5.9%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20~24세군에서 7.7%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군에서 7.3%, 15~19세군에서 4.4%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친부 또는 친모만 있는 경우가 8.3%로 친부모 모두 있다는 경우의 6.5%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형제자매의수가 3명인 응답자에서 7.4%로 가장 높았으며 4명인 자에서 5.5%로 가장 낮았다. 읍면 소재지 거주자에서 8.8%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거주자가 7.8%, 대도시 거주자에서 5.6%였다($p<0.05$).

고졸자보다 전문대 졸업자에서 약물경험률이 7.1%로 약간 높았고 농축임업종사자에서 11.9%로 타직종에서보다 높았으며 전문기술직 7.4%, 학생 6.3%였다. 종교별로보면 천주교신자에서 9.3%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 7.7%, 기독교 3.1%였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1$). 자가 판단한 가정상태별로는 상류층에서 약물경험률이 10.7%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약물의 경우 신문주(1994)의 연구와 주왕기의 연구(1989)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물사용이 높았으며 지방 거주자가 도시거주자 보다 사용률이 높아 본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였으나 경제적인 상태가 좋은 상류층에서 약물사용률이 높은 것은 본 연구와 같았다.

〈표 2〉 사용한 약물의 종류(술, 담배 제외)

구 분	단위: %(N)						
	계	본드,부탄가스	대마초	타이밍	엘에스디(LSD)	코카인,헤로인,몰핀	기타
	100.0(63)	29.6(19)	12.0(8)	20.6(13)	4.8(3)	4.2(3)	28.8(18)
성별							
남	100.0(34)	55.2	22.4	4.5	-	3.0	14.9
여	100.0(29)	-	-	39.3	10.3	5.5	44.8
				$\chi^2=40.17596$	df= 5	p<0.001	
연령							
15~19	100.0(16)	31.3	-	18.8	-	12.5	37.5
20~24	100.0(29)	26.3	5.3	34.7	-	2.1	31.6
25~29	100.0(18)	33.3	33.3	-	16.7	-	16.7
				$\chi^2=29.06170$	df= 10	p<0.05	
부모 존재여부							
친부모 생존	100.0(58)	32.2	10.5	21.4	5.2	4.5	26.1
친부(모)만 생존	100.0(5)	-	29.4	11.8	-	-	58.8
				$\chi^2=5.49425$	df= 5	sig=0.35858	

*무응답은 제외

2. 사용한 약물의 종류(술, 담배 제외)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사용한 약물을 종류별로 보면 본드와 부탄가스가 29.6%로 가장 높았고, 타이밍이 20.6%, 대마초가 12.0%, LSD가 4.8%, 코카인, 헤로인, 몰핀이 4.2%, 기타가 28.8%였다<표 2>.

고(1996)의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각성제(타이밍류), 수면제, 본드, 신경안정제, 대마초, 환각제, 코카인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본드와 부탄가스가 55.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대마초 22.4%, 코카인, 헤로인이 3.0%였으며 여자는 타이밍이 39.3%, LSD가 10.3%, 코카인, 헤로인이 5.5%였다(p<0.001).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는 기타가 37.5%였고, 본드·부탄가스 흡입이 31.3%, 코카인·헤로인이 12.5%였다.

20~24세군은 타이밍이 가장 높았고 25~29

세군은 대마초와 본드, 부탄가스 흡입이 각각 33.3%로 타연령군보다 높았다(p<0.05).

친부나 친모만 있는 경우는 기타가 58.8%였고 대마초 사용이 29.4%로서 높았고 친부모 모두 있는 경우는 본드·부탄가스흡입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타이밍, 대마초의 순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3. 약물사용 중단을 위한 치료경험여부

약물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치료경험율은 있다가 21.5%였고 없다가 78.5%였다.

남자에서 있다는율이 22.1%로 여자보다 높았고 유의성은 없었다. 10대에서 53.3%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군에서 14.3%였다(p<0.01).

편부모만 있는 경우, 치료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40.0%로 친부모 생존경우의 19.5%보다 높았다<표 3>.

〈표 3〉 약물 사용 중단을 위한 치료 경험여부

구 분	단위: %(N)		
	계 100.0(119)	있다 21.5(26)	없다 78.5(93)
성별			
남	100.0(73)	22.1	77.9
여	100.0(46)	20.5	79.5
		$\chi^2 = 0.02716$ df= 1 sig=0.86910	
연령			
15~19	100.0(23)	53.3	46.7
20~24	100.0(54)	13.7	86.3
25~29	100.0(42)	14.3	85.7
		$\chi^2 = 11.17172$ df= 2 p<0.01	
부모 존재여부			
친부모 생존	100.0(107)	19.5	80.5
친부(모)만 생존	100.0(12)	40.0	60.0
		$\chi^2 = 1.68506$ df= 1 sig=0.19425	

4. 약물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

약물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증상은 집중력저하가 42.6%로 가장 높았고 불안감, 공포가 11.7%, 환청경험이 8.2%, 정신착란이 7.7%, 환시경험이

4.5%였다(표 4).

집중력저하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약간 높았고 환청경험은 남자에서 11.8%로 여자의 3.8%보다 현저히 높았고 정신착란증세는 여자에서 남자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군에서 집중력저하와

〈표 4〉 약물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

구 분	단위: %(N)								
	계 100.0(69)	집중력 저하 42.6(30)	불안감. 공포 11.7(8)	피해 망상 2.9(2)	환청 경험 8.2(6)	환시 경험 4.5(3)	정신 착란 증세 7.7(5)	신체에 통증 4.3(3)	기타 18.1(13)
성별									
남	100.0(38)	43.4	11.8	2.6	11.8	6.6	6.6	2.6	14.5
여	100.0(31)	41.7	11.5	3.2	3.8	1.9	9.0	6.4	22.4
				$\chi^2 = 3.48606$		df= 7	sig=0.83670		
연령									
15~19	100.0(17)	41.2	-	11.8	-	5.9	11.8	17.6	11.8
20~24	100.0(31)	33.7	16.3	-	8.7	6.7	10.6	-	24.0
25~29	100.0(21)	57.1	14.3	-	14.3	-	-	-	14.3
				$\chi^2 = 26.86533$		df=14	p<0.05		
부모 존재여부									
친부모 생존	100.0(60)	41.9	11.1	3.4	9.6	5.2	8.9	5.0	14.9
친부(모)만 생존	100.0(10)	46.9	15.6	-	-	-	-	-	37.5
				$\chi^2 = 5.60103$		df= 7	sig=0.58703		

* 무응답은 제외

환경경험이 타군보다 높았고 15~19세군에서 피해망상과 정신착란증, 신체에 통증이 타연령군보다 높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5). 부모존재 여부에 따른 피해 증상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5. 약물남용과 중독에 대한 학교교육 경험

약물남용과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있다는율이 51.0%였다<표 5>. 신

(1994)의 보고에서 약물남용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는 학생들이 약물을 더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물남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표 5>.

학교교육 경험율은 여자에서 53.8%(p<0.05), 20~24세군에서 61.8%(p<0.001), 부모생존자에서 51.9%(p<0.05), 형제자매 4명에서(p<0.05), 읍면지역 소재지 거주자에서 55.4%(p<0.05), 전문대졸업자에서 53.9%(p<0.001), 기독교신자에

<표 5> 일반적 특성별 약물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학교교육 경험

구 분	계 100.0(1771)	있다 51.0(903)	없다 49.0(868)	단위: %(N)
				χ^2 (df) P값
성별				
남	100.0(825)	47.8	52.2	$\chi^2=6.15(1)$
여	100.0(946)	53.8	46.2	p<0.05
연령				
15~19	100.0(436)	42.2	57.8	$\chi^2=61.79(2)$
20~24	100.0(756)	61.8	38.2	p<0.001
25~29	100.0(579)	43.5	56.5	
부모 존재여부				
친부모 생존	100.0(1566)	51.9	48.1	$\chi^2=4.30(1)$
친부(모)만 생존	100.0(205)	44.2	55.8	p<0.05
현거주지역				
특별시, 광역시	100.0(1006)	48.6	51.4	$\chi^2=5.99(2)$
중소도시	100.0(480)	53.3	46.7	p<0.05
읍,면 소재지	100.0(285)	55.4	44.6	
교육정도				
고졸	100.0(1110)	53.7	46.3	$\chi^2=83.07(1)$
전문대졸	100.0(661)	53.9	46.1	p<0.001
종교				
기독교	100.0(433)	57.9	42.1	
천주교	100.0(190)	50.6	49.4	$\chi^2=11.36(3)$
불교	100.0(478)	48.0	52.0	p<0.01
없음	100.0(670)	48.7	51.3	
가정경제상태				
상	100.0(59)	46.8	53.2	$\chi^2=0.77(2)$
중	100.0(1483)	51.4	48.6	sig=0.68024
하	100.0(229)	49.3	50.7	
건강상태(자가판단)				
건강한 편	100.0(1232)	51.5	48.5	$\chi^2=6.86(2)$
보통	100.0(397)	53.1	46.9	p<0.05
나쁜 편	100.0(142)	40.7	59.3	

서 57.9%($p<0.01$), 건강상태가 보통인자에서 53.1%($p<0.05$)로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교육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올바른 인간상을 창조해내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감수성이 많고 쉽게 적응하며 가정과 사회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더욱 중요하다(남철현, 1998, 안대순, 1996)

6. 약물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사회교육 경험

약물남용과 중독에 대하여 학교이외 사회에

서 교육받은 경험은 없다가 85.6%였다<표 6>.

없다는 율은 여자에서 87.2%($p<0.05$), 연령이 젊은 층인 10대에서 92.2% ($p<0.001$), 부모생존자에서 86.6%($p<0.001$), 형제자매가 1명인 자에서 90.5% ($p<0.01$), 대도시 거주자에서 83.0% ($p<0.05$), 아버지 교육정도가 전문대이상 졸업자에서 86.8%($p<0.05$), 학생에서 88.3%($p<0.001$)로서 타군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약물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교육에 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인구학적 특성별 약물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사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구 분	계 100.0(1771)	있다 14.4(256)	없다 85.6(1515)	단위: %(N)
				χ^2 (df) P값
성별				
남	100.0(825)	16.3	83.7	$\chi^2=4.37(1)$
여	100.0(946)	12.8	87.2	$p<0.05$
연령				
15~19	100.0(436)	7.8	92.2	$\chi^2=63.84(2)$
20~24	100.0(756)	11.1	88.9	$p<0.001$
25~29	100.0(579)	23.8	76.2	
부모 존재여부				
친부모 생존	100.0(1621)	13.4	86.6	$\chi^2=15.47(1)$
친부(모)만 생존	100.0(150)	25.2	74.8	$p<0.001$
현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00.0(1006)	13.0	87.0	$\chi^2=5.99(2)$
중소도시	100.0(480)	15.2	84.8	$p<0.05$
읍,면 소재지	100.0(285)	18.1	81.9	
아버지 교육정도				
초등졸	100.0(240)	20.4	79.6	
중졸	100.0(374)	15.1	84.9	
고졸	100.0(756)	12.9	87.1	$\chi^2=9.01(3)$
전문대졸이상	100.0(401)	13.2	86.8	$p<0.05$
직업				
전문기술직	100.0(263)	23.9	76.1	
농·축·임업	100.0(81)	13.0	87.0	
학생	100.0(1351)	11.7	88.3	$\chi^2=45.17(3)$
가정주부	100.0(76)	31.4	68.6	$p<0.001$

〈표 7〉 약물오남용과 중독경험자의 학교 및 사회교육경험여부

구 분	계	학교교육		사회교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00.0(1771)	49.0(868)	51.0(903)	85.6(1515)	14.4(256)
음주경험					
있다	100.0(880)	46.9	53.1	83.6	16.4
없다	100.0(891)	51.1	48.9	87.5	12.5
		$\chi^2=5.13744*$		$\chi^2=5.24507*$	
흡연경험					
있다	100.0(404)	45.2	54.8	84.6	15.4
없다	100.0(1367)	50.1	49.9	85.8	14.2
		$\chi^2=4.98270*$		$\chi^2=0.40096$	
약물경험					
있다	100.0(119)	41.4	58.6	86.1	13.9
없다	100.0(1652)	49.5	50.5	85.5	14.5
		$\chi^2=4.96016*$		$\chi^2=0.03275$	

* : p<0.05

7. 약물 오남용과 중독경험자의 학교 및 사회교육 경험여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흡연, 약물, 경험이 있는자는 이의 중독에 대한 학교 교육의 경험이 없었으며 이들 변수간에는 유의성이 있었다(p<0.05).

사회교육 경험유무의 경우는 음주경험자는 유의성이 있었으나(p<0.05), 흡연과 약물경험자와는 유의성이 없었다.

8. 약물오남용의 중독 및 예방치료에 대한 정보원

약물오남용의 중독위험과 예방치료에 대한 정보원은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가 64.3%,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가 16.4%, 보건의료 전문인이 11.4%, 단체모임, 세미나 등 6.0%였다(표 8). 이는 약물오남용과 중독성에 비추어 교육홍

보 전략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 전파매체를 통한 교육홍보는 개발 강화하여야 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 전략도 새로이 개발하여 보건의료전문인이나 세미나를 통한 교육홍보도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파매체와 보건의료전문인으로부터는 여자에서, 인쇄매체와 단체모임을 통하여는 남자에서 높았으며, 전파매체는 10대에서 73.9%, 인쇄매체는 25~29세 군에서 18.9%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며(p<0.01), 전파매체는 67.9%로 대도시에서, 인쇄매체는 중소도시에서 20.4%로 높았으며(p<0.01), 고졸이상에서는 전파매체를 통하여 61.3%, 인쇄매체를 통하여 21.8%의 순이었고 전문대졸이상에서는 전파매체를 통하여는 61.3%, 보건의료 및 전문인을 통하여가 15.0%의 순이었다(p<0.001).

아버지 교육정도가 초등졸에서는 전파매체를 통하여 보건의료전문인을 통하여가 각각 67.9%와 13.4%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며 인쇄매체

〈표 8〉 인구학적 특성별 약물오남용의 중독위험 및 예방치료에 대한 정보원

구 분	계	단위: %(N)					
		보건의료인 및 전문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서신등	단체모임교육(세미 나, 학술대회등)	전문상담자 를 통해서	
	100.0(1286)	11.4 (147)	64.3 (826)	16.4 (211)	6.0 (77)	1.9 (24)	
연령							
15~19	100.0(245)	6.5	73.9	13.1	4.9	1.6	$\chi^2=22.60(8)$
20~24	100.0(564)	14.7	61.3	15.8	5.7	2.4	$p<0.01$
25~29	100.0(477)	10.1	62.9	18.9	6.9	1.3	
현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00.0(678)	9.6	67.9	13.6	6.5	2.6	$\chi^2=21.59(8)$
중소도시	100.0(388)	14.5	57.9	20.4	5.8	1.4	$p<0.01$
읍,면 소재지	100.0(220)	11.9	64.4	18.1	5.0	0.5	
교육정도							
고졸	100.0(770)	12.0	61.3	21.8	3.3	1.6	$\chi^2=56.39(4)$
전문대졸이상	100.0(516)	15.0	60.0	14.5	8.6	1.8	$p<0.001$
아버지 교육정도							
초등졸	100.0(197)	13.4	67.9	9.1	6.6	2.9	
중졸	100.0(284)	10.3	60.1	22.7	5.1	1.8	$\chi^2=23.96(12)$
고졸	100.0(512)	11.2	67.1	14.7	6.1	0.9	$p<0.05$
전문대졸이상	100.0(293)	11.7	60.7	18.3	6.3	2.8	
직업							
전문기술직	100.0(220)	15.5	61.5	14.9	6.7	1.4	
농·축·임업	100.0(72)	9.2	47.9	23.2	12.6	7.1	$\chi^2=36.64(12)$
학생	100.0(940)	11.3	65.1	16.4	5.6	1.6	$p<0.001$
가정주부	100.0(53)	-	82.2	14.0	1.9	1.9	
가정경제상태							
상	100.0(40)	9.3	81.5	7.8	-	1.5	$\chi^2=15.60(8)$
중	100.0(1074)	11.0	63.0	17.8	6.3	1.9	$p<0.05$
하	100.0(172)	15.0	68.4	9.7	5.5	1.5	

*무응답은 제외

를 통하여는 중졸자에서 22.7%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는 잔파매체를 통하여가 82.2%로 월등히 높았으며, 인쇄매체를 통하여는 농축임업 종사자에서 23.2%로 타군보다 높았고 보건의료전문인으로부터는 전문기술직에서 15.5%로 타직종보다 높았다($p<0.001$).

가정경제가 상류층에서 잔파매체를 통하여가 81.5%로 현저하게 높았으며, 중류층에서는 인쇄매체를 통하여가 17.8%로 타군보다 높았고 하

류층에서는 보건의료전문인을 통하여가 15.0%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이상에서와 같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교육이 효과가 크므로 매체에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약물오남용 예방대책에서 가장 좋은 방법

약물오남용 예방대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표 9〉 일반적 특성별 약물오남용, 예방대책에서 가장 좋은 방법

구 분	계	법제정	교육과 계몽	치료와 재활	이상모두	잘모름	단위: %(N)
							χ^2 (df) P값
	100.0(1771)	6.4 (113)	51.4 (910)	17.7 (313)	17.4 (308)	7.1 (127)	
연령							
15~19	100.0(436)	7.3	28.4	28.7	12.8	22.7	=321.01(8)
20~24	100.0(756)	7.5	54.6	15.0	19.8	3.1	p<0.001
25~29	100.0(579)	4.2	64.6	13.0	17.7	0.5	
부모 존재여부							
친부모 생존	100.0(1566)	6.5	49.4	18.0	18.6	7.6	$\chi^2=24.48(4)$
친부(모)만 생존	100.0(205)	5.3	66.4	15.7	8.4	4.2	p<0.01
현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00.0(1006)	6.0	49.1	17.3	17.3	10.3	$\chi^2=45.94(8)$
중소도시	100.0(480)	7.9	50.9	18.9	19.7	2.6	p<0.001
읍·면 소재지	100.0(285)	5.1	60.5	17.1	14.0	3.4	
교육정도							
고졸	100.0(1110)	7.3	63.4	11.3	16.3	1.6	$\chi^2=344.49(4)$
전문대졸이상	100.0(661)	6.3	58.2	10.9	22.4	2.3	p<0.001
아버지 교육정도							
초등졸	100.0(240)	6.6	64.0	13.9	13.0	2.5	
중졸	100.0(374)	3.7	48.5	22.2	18.9	6.7	$\chi^2=50.55(12)$
고졸	100.0(753)	6.3	46.3	19.1	19.3	9.0	p<0.001
전문대졸이상	100.0(401)	8.8	56.2	13.2	15.1	6.6	
직업							
전문기술직	100.0(263)	6.6	60.8	10.8	19.2	2.6	$\chi^2=63.30(12)$
농·축·임업	100.0(81)	1.2	54.6	23.4	13.4	7.4	p<0.001
학생	100.0(1351)	7.0	49.3	17.5	18.1	8.1	
가정주부	100.0(76)	-	52.1	39.3	3.1	5.5	
가정경제상태							
상	100.0(59)	14.0	38.8	13.3	21.0	12.9	$\chi^2=19.59(8)$
중	100.0(1483)	6.4	50.5	18.2	17.8	7.1	p<0.05
하	100.0(229)	4.5	60.5	15.4	14.1	5.4	

교육과 계몽이라는 응답률이 51.4%로 가장 높았고 치료와 재활이 17.7%, 법제정이 6.4%, 이상 모두가 17.4%였다<표 9>.

성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좋다는 응답률이 28.7%로 가장 높았고 교육과 계몽이 28.4%였으며, 25~29세군은 교육과 계몽이 64.6%로 가장 높았다(p<0.01). 편부모만 있는 경우는 교육과

계몽이 66.4%로 친부모의 49.4%보다 상당히 높았다(p<0.01).

형제자매수를 보면 3명이상 많은 편에서는 교육과 계몽이 좋은 방법이라는 응답률이 55.4~59.5%로 높았고 치료와 재활은 1~2명에서 높았다(p<0.001).

읍면소재지 거주자에서 교육과 계몽이 60.5%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여자에서 연령이

<표 10> 약물(음주, 흡연,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 회귀분석)

Classification	b	SE B	Beta	Sig T
연령	0.13909	0.017627	0.210309	0.0000
약물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학교교육 경험여부	-0.587053	0.125600	-0.106539	0.0000
약물 사용 경험여부	0.381574	0.252803	0.079191	0.0006
음주경험여부	0.454572	0.134167	0.082511	0.0007
성별	0.325415	0.127702	0.058929	0.0109
아버지의 교육정도	0.067239	0.030127	-0.52297	0.0257
경제상태	-0.372257	0.165102	-0.052940	0.0243
가정화목정도	0.129874	0.065083	-0.046023	0.0461
Constant	12.115456	0.645697		
R ²		0.10233		
F		22.40060		
Significance		0.0000		

높은 층에서, 형제자매수가 많은 군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상자에서 교육과 계몽이 좋다는 응답률이 높아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층에서 부드러운 대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고졸자에서 교육과 계몽이 63.4%로 전문대졸업자보다 높았으며(p<0.001), 아버지교육정도가 초등졸업자에서 교육과 계몽이 좋은 방법이라는 응답률이 64.0%로 타군보다 높았으며, 치료와 재활은 중졸자에서 타군보다 높았고, 법제정은 전문대졸이상자에서 높았다(p<0.001).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직에서 교육과 계몽이 60.8%, 법제정은 학생에서 7.0%로, 치료와 재활은 가정주부에서 39.3%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01).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신자는 법제정에서 7.9%로, 기독교신자는 교육과 계몽에서 53.8%로, 불교신자는 치료와 재활에서 22.2%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1).

가정상태별로 보면 상류층에서는 법제정이

14.0%, 중류층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18.2%, 하류층에서는 교육과 계몽이 좋다는 응답률이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 계몽사업으로 약물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만큼 특성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적절한 제도(규제)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0. 약물(음주, 흡연, 약물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 회귀분석)

약물(음주, 흡연, 약물사용)경험(Y)을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변수(Xi)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0>.

음주, 흡연, 약물사용을 포함한 약물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beta=0.2103$)이었으며 약물오남용에 대한 학교교육경험여부($\beta=-0.1065$), 음주경험여부($\beta=0.0825$), 성별(β

=0.0589), 아버지의 교육정도($\beta=0.0523$), 경제상태($\beta=-0.0529$), 가정화목정도($\beta=0.0460$)의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약물오남용에 대한 학교 교육경험이 적을수록, 약물사용경험이 있는 자에서, 음주경험이 있는 자에서($p<0.001$), 남자에서,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가정화목정도가 나쁠수록($p<0.05$), 약물경험자가 높았다. 이를 변수들의 설명력(R^2)은 10.2%였다.

IV. 요약 및 결론

대학입시 재수생 및 편입준비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지역의 학원 수강생 1,7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바 그 결과의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요약

약물경험 실태에서 흡연률은 22.8%, 음주률은 49.7%, 약물사용경험은 6.7%였다. 특성별로 보면 흡연율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낮았다. 편부모를 가진자에서, 대도시 거주자에서, 전문대 졸업자에서, 농축임업종사자에서, 천주교신자에서, 하류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음주율은 남자에서, 25~29세군에서,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전문대 졸업자에서, 무교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약물사용율은 남자에서, 20~24세군에서, 편부모만 있는자에서, 읍면거주

자에서, 전문대 졸업자에서, 농축임업종사자에서, 천주교신자에서, 경제상태가 상류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약물을 사용할 때 이용한 장소는 자기집이나 친구집에서가 60.1%로 가장 높았으며, 여관·호텔 9.0%, 야산 5.7%, 유흥업소 4.7%, 학원 4.6%의 순이었다. 약물사용시 함께 한 사람은 친구와 선후배가 53.6%였고, 혼자서가 37.9%였다. 약물구입처는 약국이 36.6%, 친구로부터가 24.2%, 약물판매점이 23.6%였다. 비용의 출처는 자신의 용돈에서가 76.0%, 타인의 돈을 갈취해서가 7.6%였다.

약물의 종류(술, 담배제외)는 본드와 부탄가스가 29.6%, 각성제 20.6%, 대마초 12.0%, LSD 4.8%, 마약(코카인, 헤로인, 아편) 4.2%, 기타 28.8%였다.

약물 사용중단을 위한 치료경험자는 21.5%였고 약물로 인한 피해증상은 집중력 저하가 42.6%, 불안감과 공포가 11.7%, 환청 8.2%, 정신착란 경험이 7.7%였다.

약물 중독의 학교교육경험률은 51.0%였고 사회교육 경험률은 14.6%에 불과 하였다. 약물경험자의 약물에 대한 학교교육경험율은 낮았다.

약물남용에 대한 정보원은 전과매체가 64.3%, 인쇄매체 16.4%, 보건의료전문인이 11.4%였으며 예방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계몽이었다.

2. 결론

대학입시에 실패한 경력이 있는 20대의 청소년인 재수생과 편입준비생은 자기불안, 자기갈등, 자기극복, 자아학대, 정신구조의 안전화, 자아발전의 사고 등으로부터 정신적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시기로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유

홍업소의 자유로운 출입도 가능하여 약물의 유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약물(흡연, 음주, 약물 사용자)경험자들을 포함한 대입 재수생 및 편입준비생들에 대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약물의 남용과 중독에 대한 흥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학원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흥경, 김명: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 고흥경: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이화여대, 1990
3. 김동일: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4. 김재호: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5. 김죽향: 고등학교 남학생의 약물사용경험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3
6. 김혜란,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계적인 관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7. 남중락: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8. 남철현: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계축문화사, 1998
9. 남철현: 한구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4
10. 민병근: 한국청소년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의과학, 2(3), 187-201, 1980
11. 박성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회사업 학관,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12. 서정화: 노인의 약물사용 실태 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7
13. 손경애,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1992, 8
14. 신문주: 일부 대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4
15. 안대순,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실태와 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6. 이근철, 이길홍, 민병근: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경정신의학, 26(2), 334-348
17.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헌수, 민병근: 청소년 비행의 약물상관변인분석, 한국의과학, 17(2), 130-147
18. 이명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약물사용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6
19. 이미경, 남철현: 대학생의 의약품복용실태와 관련요인, 보건복지 제 3호, 경산대 보건복지연구소, 67-94, 1999
20. 이유립, 약물남용 청소년과 자아정체감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1. 임상규: 의약품관련지식이 의약품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22. 조혜승: 청소년 약물남용과정의 관련요인에

- 대한 탐색과 사회산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사회사업과, 석사학위논문, 1989
23. 주왕기, 김경빈, 박명윤: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1993
24. 주왕기, 허문영, 최영옥, 노성규(1983),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 사회과학연구(강원대), 18, 161-183. 1982
25. 주왕기: 약물남용, 세계사, 1989
26. 주왕기: 약물남용, 지식산업사, 1994
27. 주왕기: 약물오·남용의 원인과 해독, 「마약사범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1989
28. 주왕기: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 세미나자료집, 1996
29. 주왕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인 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20-22, 1993
30. 주왕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약물남용 범죄와 약물공급 범죄에 관한 연구, 21-27, 1992
31. Baer, D. J., & Corrado, J. J.: Heroin addict relationships with parents during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4, 99-103, 1974
32. Baskett, G. D., Nyswender, R. W.: Drug use correlates, *Psychology*, 10, 54-66, 1973.
33. Braucht, G. N., Brakarsh, d., Follingstad, D., & Berry, K. L.: Deviant drug use in adolescence: A review of psychosoci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79, 92-106, 1973
34. Santrock, Adolescence; Brown Publisher, 1981, 179, 281
35. Winick, C.: Physician narcotic addicts, *Social Problems*, 9, 174-186, 1961
36. Willford, B. B.: "Drug Abuse; A Guide for the Primary Care Physici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hicago

<Abstract>

A Study on Drug Abuse and the Factors Affecting Drug Abuse Behaviors of Students Preparing College Entrance or Transfer Examinations

Tae Hyun Cho* · Chul Hyun Nam**

* Pusan Sam Jeong Pharmacy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san University

A study on drug abuse of young people who failed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and preparing the next examination and those enrolled at colleges but trying to transfer to other colleges was conducted from February 3 to May 31, 1999 in order to determine current drug abuse status of them and factors affecting their behavior related to drug abuse. A total of 1,771 people were selected from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institutes in Seoul, Pusan, Taegu, Taejon and Kwangju and interviewed by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49.78% of them experienced drinking, 22.8% smoking, and 6.7% drug previously. More males smoked cigarettes than females. The young in the age group of 25 to 29 years old, and the young living in small towns, and subjects who finished junior colleges and those without religions drank more than those in other categories. The subjects in the age group of 20 to 24 years old and those with one parent, and those living in small towns used more drugs than those in other categories.
2. 60.1% of those with drug using experience used the drug in their or friends' homes. 53.6% of them used drugs with their friends, junior or senior classmates. 36.6% of them purchased drugs from drug stores. 76.0% of them spent their pocket money for buying drugs.
3. The drugs (excluding alcohol and tobacco) they used were bond and butane gas (29.6%), stimulants (20.6%), marijuana (12.0%) LSD (4.8%), cocaine, heroine and opium (4.2%), and others (28.8%).
4. 21.5% of those with drug using experience had detoxification treatment previously. The ajmor sufferings they experienced were distraction (42.6%), fear (11.7%), and others.
5. 51.0% of the subjects experienced drug related health education in schools, and 14.6% had that kind of education through social program.
6. 64.3% of the subjects got information about drug abuse through mass media, 16.4% through printed materials, and 11.4% through public health professionals.
7. The knowledge level of drug abuse was 16.48 ± 2.76 points out of 24 (68.6 points out of 100).

Key words : Drug abuse, Student